

건강사회 형성의 중심축, 공공도서관

양 재 한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우리 주변에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힘의 중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인간의 삶을 점점 가볍게 하고, 삶의 무게를 잃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길은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관에서 찾아야 한다. 도서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식과 정보는 독자들에 따라 지혜로 발전하며, 지혜를 획득한 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에 정조가 만든 규장각이 있다. 정조는 도도하게 밀려오는 산업화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규장각을 세워 민족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였다. 정조 사후 급변하는 세계사의 조류를 주체적으로 이겨내려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민족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는 역사적 아픔을 경험하였다.

우리는 기초가 부실해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잘 알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최근 IMF사태 등도 이러한 예이다. 정보화도 마찬가지다. 기초가 부실한 바탕 위에 국가간에 정보고속도로가 깔리면 민족정보자본은 무너지고 우리의 정보주권은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이전에 종자정보자본(인쇄자료 등)을 확충하는 일에 우선하여야 한다. 종자정보자본 축적은 도로, 항만, 공공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과 동일하므로 우리의 정보주권 확립을 위해서 이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종자정보자본에는 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작가나 학자의 육필원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인의 육성을 담은 테이프, 그 지방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일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그래픽자료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보선진국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삶의 공동체를 엮어 나가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설정을 미국용 기성품을 한국에 억지로 이식한데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두고 만든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노릇이다.

과거 개화기에는 애국계몽운동을 위한 시설로 도서관이 필요하였고, 일제시대에는 그들의 지배이데올로기 정당화를 위한 사회교화시설로서 도서관이 필요하였다. 오늘날 공공도서관

의 존립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어야 할까.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에게 좌석이나 내어주는 사회적 장치이어야 할까. 우리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을 우리사회에 대한 관찰에서 재조명해 보자.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성장의 논리가 사회분위기를 주도해 왔다. 이제는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인간화의 논리로 대전환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는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 아래 한 덩어리가 되는 지역통합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다. 도서관은 삭막한 도시공간에 오아시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소의 개념이 없는 기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기보다는 이웃이 있고 정답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어야 한다. 과거 우리 민족은 한동아리에서 촌락을 이루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왔다. 점차 이 땅에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이 분리되고 이농현상과 함께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도시에 이합집산된 무리들은 새로운 정착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 전통의 삶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로 묶어 주었던 두레, 향약, 계 등의 유산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낼 수는 없을까. 개인의 자유, 삶의 질, 삶의 안정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인 지역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공동체를 엮어 나갈 중심 시설이 무엇일까. 바로 지역 공공도서관이다.

나는 창원이라는 인구 50여만이 사는 도시에서 건강사회 형성을 위한 중심 축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은 공부방 구실을 주로 수행하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몇 년동안 주민을 관찰하고 정책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땅의 터와 때에 맞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주민들을 관찰하면서 이 땅에는 '일상성의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 공부방 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상성의 도서관'을 주민들과 연대하여 1994년부터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류의 도서관을 창원에서는 '마을도서관'이라 부른다. 그 이후 창원에는 행정동마다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도서관을 설치하였다. 현재는 모두 18개의 마을도서관이 세워져 있다. 18개 도서관의 장서수는 각각 3,000-6,000권 정도이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1명이 상근 하면서 마을공동체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상성의 도서관'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공간에는 이웃이 있고 삶이 있는 공간이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도서관이 아닐까.

【편집자주】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96년 12월 20일 세계 160여 국의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 채택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의 체결 이후 국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本誌面을 통해 도서관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자도서관 구축이 활발한 시점에서 저작권 저축의 문제는 없는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도서관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 글을 실는 순서 】

- 총론 / 정보관리와 저작권 ...6
- 현장의 소리 <1> 학술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 필요 ...15
 - <2> 저작권자의 권리에 비례해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도 확장해야 ...16
 - <3> 전자도서관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사용권 보장되어야 ...18
 - <4> 디지털 시대에도 도서관의 공정사용(Fair Use)은 보장되어야 한다 ...20
 - <5> 학교도서관도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22
- 자료 <1> 한국도서관협회의 저작권법 개정 의견서 ...25
 - <2>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성명서 요약문 ...28
 - <3> '도서관과 저작권' 문제에 관한 주요 참고문헌
 - 연속간행물기사 ...14
 - 학위논문 ...17